

『醫學入門·臟腑條分』中 脾臟에 작용하는 藥物에 대한 研究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정보학과·한의학대학 원전학교실
이석재 · 금경수*

A study on The Medicines Effectuated on The Spleen in The 'Bowel-Viscus Classification' of An Introduction to Medical Science

Dept. of Oriental Medicinal informatics,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 · Dep. of Oriental Medicine Classics
Lee, Seok-Jae · Keum, Kyung-Soo

In this dissertation, I will focus on the channel entry, the effect and the treatment throughout books of oriental medicine from ancient to modern in order to classify the medicines of the Spleen as main or supplementary organ.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medicines which work on the Spleen(本臟) chiefly were 38, which were Gingseng Radix(人蔘), Astragali Radix(黃芪), Hoelen(茯苓), Atractylodis Rhizoma alba(白朮), Glycyrrhizae Radix(甘草), Atractylodis Rhizoma(蒼朮), Aurantii Nobilis Pericarpium(陳皮), Pinelliae Rhizoma(半夏), Nelumbinis Semen(蓮肉), Semen Euryacles(芡實), Crataegi Fructus(山楂), Dolichoris Semen(扁豆), Hordei Fructus Germinatus(麥芽), Dioscoreae Radix(山藥), Paeoniae Radix(白芍藥), Zingiberis Rhizoma(乾薑), Arecae Pericarpium(大腹皮), Cimicifugae Rhizoma(升麻), Aurantii Fructus(枳殼), Tiglii Semen(巴豆), Scirpi Rhizoma(三稜), Paeoniae Radix rubra(赤芍藥), Amydae Carapax(鱉甲), (Coptidis Rhizoma(黃連), Dioscoreae Radix(萎蕤), Amomi Semen(砂仁), Zingiberis Rhizoma(生薑), Saussureae Radix(木香), Cinnamomi Cortex Spissus(肉桂), Myristicae Semen(肉豆蔻), Alpiniae Fructus(益智仁), Evodiae Fructus(吳萸), Caryophylli Flos(丁香), Agastachis Herba(藿香), Fructus Piperis Nigri Seu Albi(胡椒), Acontii Tuber(附子), Alpiniae Officinari Rhizoma(良薑), Fructus Galangae(紅豆蔻).

* 교신저자: 금경수,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063-850-6847, kskeum@wonkwang.ac.kr

2. The medicines which work on the other viscera(他臟) chiefly were 12, which were Talcum(滑石), Bupleuri Radix(柴胡), Semen Lepidii Seu Descurainiae(葶藶子), Mori Cotex Radicis(桑白皮), Aurantii Immaturi Pericarpium(青皮), Gardeniae Fructus(梔子), Forsythiae Frucus(連翹), Antelopsis cornu(羚羊角), Alimatis Rhizoma(澤瀉), Epimedii Herba(仙靈脾), Cyperi Rhizoma(香附子), Rhizome Chuanxiong(川芎).

3. medicines, effected on the Spleen functioned through any other viscera were as follows:
Talcum(滑石) works to treat renal heat Entering the Spleen(腎熱入脾)
Bupleuri Radix(柴胡) works to treat Hepatic Asthenia Entering the Spleen(肝虛入脾)
Semen Lepidii Seu Descurainiae(葶藶子) and Mori Cotex Radicis(桑白皮) works to treat Pulmonary gi Entering the Spleen(肺氣入脾)
Aurantii Immaturi Pericarpium(青皮) works to treat Hepatic gi Entering the Spleen(肝氣入脾)
Gardeniae Fructus(梔子) and Forsythiae Frucus(連翹) works to treat Cardiac Heat Entering the Spleen(心熱入脾)
Antelopsis cornu(羚羊角) works to treat Hepatic wind Entering the Spleen(肝風入脾)
Alimatis Rhizoma(澤瀉) works to treat Hepatic heat Entering the Spleen(肝熱入脾)
Epimedii Herba(仙靈脾) works to treat Renal asthenia Entering the Spleen(腎虛入脾)
Cyperi Rhizoma(香附子) 와 Rhizome Chuanxiong(川芎) works to treat Hepatic gi Entering the Spleen(肝氣入脾)

In the study of concerning the medicines effected on the spleen, It is considered that it dedicated to development of the medicines related to the spleen and making efficient use of the medicines.

Key Words: Spleen, Bowel-Viscus Classification, Introduction to medical Science

I. 緒論

人體는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기에 人體를 小宇宙로 비유한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人體도 이의 영향을 받아 몸에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고, 人間이 科學을 발달시킴으로 인해 大自然이 영향을 받아 많은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自然과 人間이 상호 영향을 미치듯이 人體 內의 臟腑 間에도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이다.

明代에 李梴이란 醫家가 저술한 『醫學入門』의 특징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臟腑가 相通한다는 이론이다. 이는 『靈樞·本輸篇』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靈樞·本輸篇』에 “肺는 大腸과 서로 表裏이고, 心은

小腸과 서로 表裏이고, 肝은 膽과 서로 表裏이고, 脾는 胃와 서로 表裏이고, 腎은 膀胱과 表裏이다.”¹⁾라 하여 臟腑間에 서로 연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李梴은 『五臟穿鑿論』에서 “心과 膽이 相通하고, 肝과 大腸이 相通하고, 脾와 小腸이 相通하고, 肺와 膀胱이 相通하고, 腎과 三焦가 相通하고, 腎과 膀胱이 相通한다.”²⁾고 하여 臟腑가 相通한다는 이론을 밝히고

1) 靈樞研究集成刊行委員會. 靈樞研究集成. 대구. 청운인쇄. 2006. 上券, p.61. “肺合大腸, 心合小腸, 肝合膽, 脾合胃, 腎合膀胱”
2) 李梴. 醫學入門. 中國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p.72. “『五臟穿鑿論』:心與膽相通(心病怔忡,宜溫膽爲主;膽病戰慄癲狂,宜補心爲主).肝與大腸相通(肝病宜疏通大腸,大腸病宜平肝經爲主).脾與小腸相通(脾病宜瀉小腸火,小腸病宜潤脾土爲主).肺與膀胱相通(肺病宜清利膀胱水,後用分利清瀉;膀

있다.

藥物治療에 있어서도 本臟으로 作用하는 藥物을 사용해서 脾臟을 다스리기도 하며, 他臟으로 作用하는 藥物을 사용해서도 脾臟을 다스리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病이 傳變하는 것을 抑制하여 治療의 目的을 거두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著者は 臨床에서 藥物의 作用機轉을 밝히기 위해서 『醫學入門·臟腑條分』中 脾臟에 配屬된 藥物을 가지고 古代에서 現代에 이르는 本草書의 歸經·效能·主治를 比較 分析한 결과 약간의 識見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研究方法 및 研究對象

본 研究에서는 『醫學入門·臟腑條分』中 脾臟에 作用하는 藥物을 調査하였다.

2.1 研究背景

『醫學入門』은 의학보급촉진에 기여한 의학입문서로서, 外感·內傷·雜病 및 臨床各科의 疾病이 알기 쉽게 論述되었다.

특히 『醫學入門』의 本草篇에서는 臨床에 있어 本草를 쉽게 응용하기 위해서 藥物의 效用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本草分類方式에 있어서도 다른 本草書의 自然分類方式과는 다르게 藥性分類方式(治風門, 治熱門, 治濕門, 治燥門, 治寒門, 治瘡門, 治食門)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분류된 藥物 中 常用하는 藥物을 『醫學入門』의 臟腑條分에서는 補瀉溫涼으로 나누어 각 臟腑에 배속시키고 있다. 그러나 각 臟腑에 配屬된 藥物 中 일부 藥物은 配屬된 臟腑와 效能·主治面에서는 관련성이 적지만 本質의으로는 관련성이 많다는 것을 알고서 여러 本草書를 통하여 配屬된 臟腑와의 關聯性與否를 分析하게 되었다.

膀胱宜清肺氣爲主, 兼用吐法, 腎與三焦相通(腎病宜潤和三焦, 三焦病宜補腎爲主), 腎與膀胱相通(津液胃虛, 宜大補右腎)”

李梴이 『醫學入門』에서 주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臟腑病理와 臨床治療方面으로부터 臟腑가 서로 相通한다는 理論이다.³⁾ 이는 臟腑間에는 서로 傳變이 이루어지고 治療에 있어서도 他臟을 다스려서 本臟의 病을 治療할 수 있다는 論據가 된다.

이를 근거로 著者は 臟腑條分中에서 脾臟部 藥物을 著名한 本草書들을 통해서 本臟에 주로 작용하는 藥物과 他臟에 주로 작용하는 藥物로 먼저 나눈 다음 歷代 本草書들 속에서 關聯藥物을 찾아 研究分析해 보았다.

【표 1】 本臟에 주로 作用하는 藥物과 他臟에 주로 作用하는 藥物로 구분하기 위해 參考한 書籍

書籍名	著者	出版社	地域	年度
本草求真	黃宮綉	醫聖堂	서울	1997
申氏本草學	申佶求	高文社	서울	1971
中藥大辭典	江蘇新醫學院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86

2.2 研究對象

『醫學入門·臟腑條分』中 脾臟條分の 原文에 配屬된 藥物은 총 12종으로 補藥 4종(人蔘, 黃芪, 茯苓, 白朮), 瀉藥 3종(巴豆, 三稜, 枳殼), 涼藥 3종(梔子, 黃連, 滑石), 溫藥 2종(香附, 砂仁)이며, 註解에 배속된 藥物은 총 42종으로 補藥 21종(茯苓, 白朮, 甘草, 蒼朮, 陳皮, 半夏, 蓮肉, 芡實, 山查, 扁豆, 麥芽, 滑石, 山藥, 白芍, 乾薑, 大腹皮, 升麻, 柴胡, 枳殼, 人蔘, 黃芪), 瀉藥 7종(巴豆, 三稜, 赤芍藥, 葶藶子, 桑白皮, 青皮, 鱉甲), 涼藥 10종(山梔, 黃連, 羚羊角, 甘草, 白芍藥, 連翹, 升麻, 澤瀉, 菱莖, 仙靈脾), 溫藥 14종(乾

3) 李梴. 醫學入門. 中國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p.72. “『五臟穿鑿論』: 心與膽相通(心病怔忡, 宜溫膽湯; 膽病戰慄癲狂, 宜補心爲主). 肝與大腸相通(肝病宜疏通大腸, 大腸病宜平肝經爲主), 脾與小腸相通(脾病宜瀉小腸火, 小腸病宜潤脾土爲主), 肺與膀胱相通(肺病宜清利膀胱水, 後用分利清濁; 膀胱病宜清肺氣爲主, 兼用吐法), 腎與三焦相通(腎病宜潤和三焦, 三焦病宜補腎爲主), 腎與膀胱相通(津液胃虛, 宜大補右腎)”

薑, 生薑, 木香, 肉桂, 肉豆蔻, 川芎, 益智仁, 吳萸, 丁香, 藿香, 胡椒, 附子, 良薑, 紅豆蔻)이다.⁴⁾

原文과 註解에서 중복되는 藥物은 甘草, 白芍, 升麻, 滑石(補藥:註解, 涼藥:註解), 乾薑(補藥:註解, 溫藥:註解), 枳殼(補藥:註解, 瀉藥:原文)로 6종이다.⁵⁾

以上 研究對象 藥物은 총50종이다.

2.3 研究方法

1. 『醫學入門·臟腑條分』의 脾臟에 作用하는 藥物을 調査하기 위한 관련書籍 分析 및 先行研究를 살펴보았다.
2. 『醫學入門·臟腑條分』의 脾臟藥物을 本臟에 주로 作用하는 藥物과 他臟에 주로 作用하는 藥物로 구분하기 위해 『本草求真』, 『申氏本草學』, 『中藥大辭典』을 調査하여 比較·分析하였다.
3. 本論에서는 脾臟에 配屬된 藥物을 補、瀉、溫、涼의 순서로 分析해본다. 本臟에 주로 作用하는 藥物과 他臟에 주로 作用하는 藥物로 區分된 效能·主治는 本草의 嚆矢인 『神農本草經』을 비롯해서 『名醫別錄』, 『日華子本草』를 위주로 參考하였다.⁶⁾
4.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引用 文獻의 原文은 脚註로 處理하였다.

4) 李樞, 醫學入門. 中國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p.69. 『醫學入門·臟腑條分』中 脾臟에 作用하는 藥物 補以 參 芪 苓 朮 茯苓 白朮 甘草 蒼朮 陳皮 半夏 蓮肉 芡實 山楂 扁豆 麥芽 滑石 山藥 白芍 乾薑 大腹皮 升麻 柴胡 枳殼 人蔘 黃芪 瀉必 巴 稜 枳殼 巴豆 三稜 赤芍 葶藶 桑白皮 青皮 鱉甲 涼以 梔 連 滑石 山梔 黃連 羚羊角 甘草 白芍 連翹 升麻 澤瀉 萎蕤 仙靈脾 溫必 香附 砂仁 乾薑 生薑 木香 肉桂 肉豆蔻 川芎 益智仁 吳萸 丁香 藿香 胡椒 附子 良薑 紅豆蔻

5) 原文과 註解에서 중복되는 藥物은 人蔘, 黃芪, 茯苓, 白朮은 補藥의 原文과 註解에서 중복되었으며, 巴豆와 三稜은 瀉藥의 原文과 註解에서 중복되었으며, 山梔와 黃連은 涼藥의 原文과 註解에서 중복되었으므로, 이들 약물은 原文에서만 다루고 註解에서는 생략한다.

6) 歷代本草書들에서 『神農本草經』, 『名醫別錄』, 『日華子本草』를 위주로 하여 引用하였던것을 많이 볼 수 있었다.

5. 本 論文에 사용한 부호로는 引用文獻은 『 』, 字句 解는 단어와 각주로, 脚注는)로 표시하였다.

6. 強調해야 할 文句가 節인 경우에는 “ ”로 強調 하였고 句인 경우에는 ‘ ’로 강조하였다.

III. 本 論

臟腑條分의 脾臟藥物을 本臟에 주로 作用하는 藥物과 他臟에 주로 作用하는 藥物⁷⁾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7) 他臟에 주로 作用하는 藥物로는 腎臟으로 歸經하지 않는 藥物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腎臟에 歸經은 하더라도 他臟에 歸經하는 것에 비해 作用力이 떨어지는 것 까지 포함시켰다.

區分	藥物	本草求真	中藥大辭典	申氏本草學	臟腑	備考
補藥	人蔘	專入肺兼入脾	脾肺	肺脾胃腎	肺脾胃腎	
	黃芪	專入肺兼入脾	肺脾	肺脾腎大腸三焦	肺脾腎大腸三焦	
	茯苓	專入脾胃兼入肺肝	心脾肺	心肺腎脾胃	心脾胃肺肝腎	
	白朮	專入脾	脾胃	脾胃小腸三焦腎肝	脾胃小腸三焦腎肝	
	甘草	專入脾	脾胃肺	脾胃	脾胃肺	補藥兼涼藥
	蒼朮	專入脾	脾胃	脾肺胃大腸小腸	脾肺胃大腸小腸	
	陳皮	專入脾肺兼入大腸	脾肺	脾肺	脾肺大腸	
	半夏	專入脾胃膽兼入心	脾胃	*	脾胃膽心	
	蓮肉	入脾兼入心腎	心脾胃	肺脾心腎胃	脾胃心腎肺	
	芡實	專入脾腎	脾腎	脾胃心肝腎	脾胃心肝腎	
	山楂	專入脾胃	脾胃肝	脾胃肝	脾胃肝	
	扁豆	專入脾	脾胃	*	脾胃	
	麥芽	專入脾	脾胃	脾胃	脾胃	
	山藥	專入脾兼入肺腎	肺脾腎	肝肺脾腎	肺脾腎	
	白芍藥	專入肝	肝脾	肺肝脾	肺肝脾	
	乾薑	專入胃	脾胃肺	心肺脾胃腎大腸	心肺脾胃腎大腸	補藥兼溫藥
	大腹皮	專入腸胃	脾胃大小腸	肺脾胃大小腸	肺脾胃大腸小腸	
	升麻	專入脾胃兼入肺大腸	肺脾胃	脾胃肺大腸	脾胃肺大腸	補藥兼涼藥
枳殼	專入肺胃兼入大腸	肺脾大腸	*	肺脾胃大腸	補藥兼瀉藥	
瀉藥	巴豆	專入腸胃	胃大腸	脾肺胃大腸小腸	脾肺胃大腸小腸	
	三稜	專入肝	肝脾	肺肝脾	肺肝脾	
	赤芍	專入肝	肝脾	肺肝脾小腸	肝脾小腸	
	鱉甲	專入肝	脾肝	肝肺脾	肝肺脾	
涼藥	黃連	專入心兼入腸胃脾	心肝胃大腸	心肝膽脾胃大腸	心肝膽脾胃大腸	
	萎蕤	專入肺兼入肝脾腎	肺胃	心肺	肺肝脾胃心腎	
溫藥	砂仁	專入脾胃兼肺腎大小腸膀胱	脾胃	脾胃肝腎肺大腸小腸小腸心包膀胱	胃肝肝腎肺大腸小腸心包膀胱	
	生薑	專入肺	肺脾胃	肺心脾胃	肺心脾胃	
	木香	專入肝脾	肺肝脾	三焦肺脾肝	肝脾三焦肺	
	肉桂	專入命門肝	腎脾膀胱	脾心腎肝命門	命門肝腎心脾膀胱	
	肉豆蔻	專入脾胃兼入大腸	脾大腸	脾胃大腸	脾胃大腸	
	益智仁	專入脾胃兼入腎	脾腎	脾肺心腎	脾胃心肺腎	
	吳萸	專入肝兼入脾胃腎膀胱	肝胃	肝腎脾胃膀胱	肝脾胃腎膀胱	
	丁香	專入肺胃腎	脾胃腎	肺脾胃腎	肺脾胃腎	
	藿香	專入脾胃肺	肺脾胃	肺脾胃	肺脾胃	
	胡椒	專入胃	胃大腸	胃大腸	胃大腸	
	附子	專入命門	心脾腎	脾腎膀胱三焦	命門心脾腎膀胱三焦	
良薑	專入胃	脾胃	脾胃	脾胃		
紅豆蔻	*	肺脾	*	肺脾		

【표 2】 本臟에 주로 작용하는 藥物

區分	藥物	本草求真	中藥大辭典	申氏本草學	臟腑	備考
補藥	滑石	專入膀胱	胃膀胱	肺心脾胃膀胱大腸小腸	肺心脾胃膀胱大腸小腸	補藥 兼涼藥
	柴胡	專入膽	肝膽	肝膽心包三焦胃大腸	肝膽心包三焦胃大腸	
瀉藥	葶藶子	專入肺兼入胃	肺膀胱	肺胃小腸大腸膀胱	肺胃小腸大腸膀胱	
	桑白皮	專入肺	肺脾	肺大腸	肺脾大腸	
	青皮	專入肝	肝膽	肝膽三焦	肝膽三焦	
涼藥	梔子	專入心肺	心肝脾胃	*	心肝脾胃	
	羚羊角	專入肝兼入心肺	肝心	*	肝心肺	
	連翹	專入心	心肝膽	膽大腸膀胱三焦心包肺脾胃肝	膽大腸大腸膀胱三焦心包肺脾胃	
	澤瀉	專入膀胱腎	腎膀胱	脾肺腎小腸膀胱	脾肺腎小腸膀胱	
	仙靈脾	專入命門兼入肝腎	肝腎	肝胃大腸三焦	命門肝腎胃大腸三焦	
溫藥	香附	專入肝膽兼入肺	肝三焦	肝膽肺三焦	肝膽肺三焦	
	川芎	專入肝兼入心包膽	肝膽	肝脾心膽三焦	肝膽脾心三焦心包	

【표 3】 他臟에 주로 작용하는 藥物

3.1 本臟에 주로 작용하는 藥物

1. 補藥

1) 人參

『神農本草經』“主補五臟，安精神，止驚悸，除邪氣，明目，開心益智”⁸⁾

『名醫別錄』“療腸胃中冷，心服鼓痛，胸脇逆滿，霍亂吐逆，調中，止消渴，通血脈，破堅積，令人不忘”⁹⁾

『日華子本草』“殺金石藥毒，調中治氣，消食開胃”¹⁰⁾

2) 黃芪

『神農本草經』“主癰疽，久敗創，排膿止痛，大風癩疾，五痔，鼠瘻，補虛，小兒百病”¹¹⁾

『名醫別錄』“主婦人子腸風邪氣，逐五臟間惡血。補丈夫，虛損，五勞羸瘦。止渴，腹痛，泄痢，益氣，利陰氣。”¹²⁾

『日華子本草』“助氣，壯筋骨，長肉，補血，破癥瘕，瘰癧瘰癧，腸風，血崩帶下，赤白痢，產前後一切病，月候不勻，消渴，痰嗽，并治頭風熱毒，赤目”¹³⁾

『本草備要』“生用固表，無汗能發，有汗能止，溫分肉，實腠理，瀉陰火，解肌熱；炙用補中，益元氣，溫三焦，壯脾胃。生血，生肌，排膿內托，瘡癤聖藥。痘症不起，陽虛無熱者宜之。”¹⁴⁾

3) 茯苓

『神農本草經』“主胸脇逆氣，憂志驚邪恐悸，心下結痛，寒熱煩滿，咳逆，口焦舌乾，利小便。”¹⁵⁾

『名醫別錄』“止消渴，好睡，大腹，淋瀝，膈中痰水，水腫淋結。開胸腑，調臟氣，伐腎邪，長陰，益氣力，補腎守中。”¹⁶⁾

『日華子本草』“補五勞七傷，安胎，暖腰膝，開心益智，止健忘。”¹⁷⁾

8) 吳普. 神農本草經. 서울. 翰林社. 1976. p.12.

9) 陶弘景. 名醫別錄. 中國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28.

10)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中國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37.

11) 吳普. 神農本草經. 서울. 翰林社. 1976. p.26.

12) 陶弘景. 名醫別錄. 中國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114.

13)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中國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52.

14) 汪昂. 本草備要. 中國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P.7.

15) 吳普. 神農本草經. 서울. 翰林社. 1976. p.39.

16) 陶弘景. 名醫別錄. 中國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16.

17)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中國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

4) 白朮

『神農本草經』“主風寒濕痺，死肌，瘰，疸，止汗，除熱消食。”¹⁸⁾

『名醫別錄』“主大風存身面，風眩頭痛，目泊出，消痰水，逐皮間風水結腫，除心下急滿，及霍亂吐下不止，利腰臍間血，益津液，暖胃，消穀嗜食”¹⁹⁾

『日華子本草』“治一切風疾，五勞七傷，冷氣腹脹，補腰膝，消痰，治水氣，利小便，止反胃嘔逆，及筋骨弱軟，痲痺氣塊，婦人冷，癥瘕，溫疾，山嵐瘴氣，除煩，長肌”²⁰⁾

5) 甘草(兼涼)

『神農本草經』“主五臟六腑寒熱邪氣，堅筋骨，長肌肉，倍力，金創腫解毒”²¹⁾

『名醫別錄』“溫中下氣，煩滿短氣，傷臟咳嗽，止渴，通經脈，利血氣，解百藥毒”²²⁾

『日華子本草』“安魂定魄。補五勞七傷，一切虛損，驚悸煩滿，健忘，通九竅，利百脈，益精養氣，壯筋骨，解冷熱。”²³⁾

『湯液本草』“治肺痿止膿血，用作吐劑；消五發之瘡疽，與黃芪同功。”²⁴⁾

6) 蒼朮

『本經逢源』“疏泄陽明之濕，而安太陰，辟時行惡氣”²⁵⁾

『景岳全書』“發汗寬中，調胃進食，去心腹脹疼，霍亂嘔吐，解諸鬱”²⁶⁾

社。2005. p.113.

18) 吳普. 神農本草經. 서울. 翰林社. 1976. p.13.

19) 陶弘景. 名醫別錄. 中國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22.

20)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中國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32.

21) 吳普. 神農本草經. 서울. 翰林社. 1976. p.12.

22) 陶弘景. 名醫別錄. 中國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28.

23)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中國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37.

24) 王好古. 湯液本草. 서울. 醫聖堂. 1994. p.85.

25) 張璐. 本經逢源. 中國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38.

26) 張介賓. 景岳全書. 서울. 麗江出版社. 1987. p.336.

『本草從新』“燥胃強脾，發汗除濕，能升發胃中陽氣，止吐瀉逐痰水”²⁷⁾

7) 陳皮

『神農本草經』“主胸中癩熱逆氣，利水穀，久服去臭，下氣”²⁸⁾

『名醫別錄』“下氣，止久咳，除膀胱留熱停水五淋，利小便，主脾不能消穀，氣沖胸中，吐逆霍亂，止泄，去寸白。”²⁹⁾

『日華子本草』“消痰止嗽，破癥瘕痞”³⁰⁾

『醫學啓源』“去胸中寒邪，破滯氣，益脾胃”³¹⁾

8) 半夏

『神農本草經』“主傷寒寒熱，心下堅，下氣，喉咽腫痛，頭眩胸張，咳逆，腸鳴，止汗。”³²⁾

『名醫別錄』“消心腹胸膈痰熱滿結，咳嗽上氣，心下急痛堅痞，時氣嘔逆；消癰腫，墮胎，療瘰黃，悅澤面目。生令人吐，熱令人下。”³³⁾

『日華子本草』“治吐食反胃，霍亂轉筋，腸腹冷，痰瘧。”³⁴⁾

『醫學啓源』“治寒痰及形寒飲冷傷肺而咳，大和胃氣，除胃寒，進飲食，治太陽痰厥頭痛，非此不能除。”³⁵⁾

9) 蓮肉

『神農本草經』“主補中，養神，益氣力。”³⁶⁾

『日華子本草』“益氣，止渴，助心，止痢，治腰痛，治

27) 吳儀洛. 本草從新. 서울. 행림출판. 1989. p.9.

28) 吳普. 神農本草經. 서울. 翰林社. 1976. p.43.

29) 陶弘景. 名醫別錄. 中國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91.

30)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中國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122.

31) 張元素. 中華醫書集成(第22冊)醫學啓源. 中國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44.

32) 吳普. 神農本草經. 서울. 翰林社. 1976. p.6.

33) 陶弘景. 名醫別錄. 中國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242.

34)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中國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93.

35) 張元素. 中華醫書集成(第22冊)醫學啓源. 中國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43.

36) 吳普. 神農本草經. 서울. 翰林社. 1976. p.50.

泄精,安心”³⁷⁾

『本草備要』“清心除煩,開胃進食,專治噤口痢,淋濁諸證.”³⁸⁾

10) 芡實

『神農本草經』“主濕痺腰脊膝痛,補中除暴疾,益精氣,強志,令耳目聰明.”³⁹⁾

『日華子本草』“開胃助氣”⁴⁰⁾

『本草從新』“補脾固腎,助氣澁精.治夢遺滑精,解暑熱酒毒,療帶濁泄瀉,小便不禁”⁴¹⁾

11) 山楂

『本草求真』“消食磨肉 伐胃戕脾”⁴²⁾

『本草蒙筌』“行結氣,療瘡疔.”⁴³⁾

『本草從新』“酸甘微溫,健脾行氣,消食磨積,散瘀化痰,發小兒痘疹,行乳食停滯止兒枕作痛,療小腸疝氣”⁴⁴⁾

12) 扁豆

『名醫別錄』“主和中,下氣”⁴⁵⁾

『日華子本草』“補五臟,益中”⁴⁶⁾

『本草備要』“調脾暖胃,通利三焦,降濁升清,消暑除濕,止渴止瀉,專治中宮之病”⁴⁷⁾

13) 麥芽

『日華子本草』“溫中,下氣,開胃,止霍亂,除煩,消痰,破癥結,能催生落胎”⁴⁸⁾

『景岳全書』“病久不食者可”⁴⁹⁾

『本草備要』“補脾寬腸”⁵⁰⁾

14) 山藥

『神農本草經』“主傷中,補虛羸,除寒熱邪氣,補中益氣力,長肌肉,久服耳目聰明”⁵¹⁾

『名醫別錄』“主頭面游風,風頭眼弦,下氣,止腰痛,治虛勞羸瘦,充五臟,除煩熱,降陰”⁵²⁾

『日華子本草』“助五臟,強筋骨,長志安神,主泄精健忘”⁵³⁾

『本草綱目』“益腎氣,健脾胃,止泄痢,化痰涎,潤皮毛”⁵⁴⁾

15) 白芍藥

『神農本草經』“主邪氣腹痛,除血痺,破堅積,寒熱疝瘕,止痛,利小便,益氣”⁵⁵⁾

『名醫別錄』“主通順血脈,緩中,散惡血,逐積血,去水氣.利膀胱大小腸,消癰腫,時行寒熱,中惡,腹痛,腰痛”⁵⁶⁾

『醫學啓源』“安脾經,治腹痛,收胃氣.止泄痢,和血,固腠理,瀉肝,補脾胃”⁵⁷⁾

16) 乾薑(兼溫)

37)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中國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194.

38) 汪昂. 本草備要. 中國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P.169.

39) 吳普. 神農本草經. 서울. 翰林社. 1976. p.51.

40)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中國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195.

41) 吳儀洛. 本草從新. 서울. 행림출판. 1989. p.165.

42) 黃宮綉. 本草求真. 서울. 醫聖堂. 1997. p.202.

43) 陳嘉謨. 本草蒙筌. 中國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p.323.

44) 吳儀洛. 本草從新. 서울. 杏林書院. 1972. p.149.

45) 陶弘景. 名醫別錄. 中國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313.

46)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中國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230.

47) 汪昂. 本草備要. 中國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P.177.

48)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中國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225.

49) 張介賓. 景岳全書. 서울. 麗江出版社. 卷2. 1987. p.387.

50) 汪昂. 本草備要. 中國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174.

51) 吳普. 神農本草經. 서울. 翰林社. 1976. p.18.

52) 陶弘景. 名醫別錄. 中國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26.

53)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中國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35.

54) 李時珍. 本草綱目. 中國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710.

55) 吳普. 神農本草經. 서울. 翰林社. 1976. p.9.

56) 陶弘景. 名醫別錄. 中國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117.

57) 張元素. 中華醫書集成(第22冊)醫學啓源. 中國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45.

『神農本草經』“主胸滿咳逆上氣，溫中，止血，出汗，逐風濕痺，腸澀下痢。”⁵⁸⁾

『名醫別錄』“治寒冷腹痛，中惡霍亂脹滿，風邪諸毒，皮膚間結氣，止唾血”⁵⁹⁾

『日華子本草』“消痰，下氣，治轉筋，吐瀉，腹藏冷，反胃乾嘔，瘀血撲損，止鼻洪，解冷熱毒，開胃，消宿食”⁶⁰⁾

17) 大腹皮

『日華子本草』“下一切氣，止霍亂，通大小腸，健脾，開胃，調中”⁶¹⁾

『本草綱目』“降逆氣，消肌膚中水氣浮腫，腳氣壅逆，瘡癩痞滿，胎氣惡阻脹悶”⁶²⁾

『本草從新』“辛泄肺，溫和脾，下氣寬胸，行水通大小腸，治水腫脚氣，痞脹痰膈，瘡癩霍亂”⁶³⁾

18) 升麻(兼涼)

『神農本草經』“主解百毒，辟溫疾，瘡邪毒蟲”⁶⁴⁾

『名醫別錄』“主中惡腹痛，時氣毒癘，頭痛寒熱，風腫諸毒，喉痛，口瘡”⁶⁵⁾

『日華子本草』“安魂定魄；游風腫毒，口氣，疳蠱”⁶⁶⁾

19) 枳殼(兼瀉)

『日華子本草』“健脾，開胃，調五臟，下氣，止嘔逆，消痰，治反胃，霍亂，瀉痢，消食，破癥結疝癖，五膈氣，除風，明目，及肺氣水腫，利大小腸，皮膚癢，痔腫”⁶⁷⁾

58) 吳普. 神農本草經. 서울. 翰林社. 1976. p.6.

59) 陶弘景. 名醫別錄. 中國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158.

60)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中國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59.

61)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中國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134.

62) 李時珍. 本草綱目. 中國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778.

63) 吳儀洛. 本草從新. 서울. 杏林書院. 1972. p.157.

64) 吳普. 神農本草經. 서울. 翰林社. 1976. p.35.

65) 陶弘景. 名醫別錄. 中國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39.

66)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中國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40.

『本草綱目』“治裏急後重”⁶⁸⁾

『景岳全書』“束胎安胎炙熱可”⁶⁹⁾

2. 瀉藥

1) 巴豆

『神農本草經』“主傷寒溫瘧寒熱，破癥瘕結聚堅積，留飲淡癖，大腹水脹，蕩練五臟六腑，開通閉塞，利水穀道，去惡肉，除鬼毒蟲”⁷⁰⁾

『名醫別錄』“療女子月閉，爛胎，金瘡，膿血不利，丈夫陰癩，殺斑猫毒”⁷¹⁾

『日華子本草』“通宣一切病，泄壅滯，除風，補勞，健脾，開胃，消痰，破血，排膿，消腫毒，殺腹，藏蟲。治惡瘡息肉，及疥癩丁腫”⁷²⁾

『湯液本草』“可以通腸，可以止泄”⁷³⁾

2) 三稜

『日華子本草』“治婦人血脈不調，心腹痛，落胎，消惡血，補勞，通月經治氣脹，消撲損瘀血，產後腹痛血暈，并宿血不下”⁷⁴⁾

『景岳全書』“能行血中之氣，善破積氣，逐瘀血，消飲食脹滿，氣滯腹痛，諸疝癖癥瘕積聚結塊，通月水”⁷⁵⁾

『用藥珍珠囊』“治癥瘕癖積結塊，脹滿，治氣脹，破積氣，損真氣”⁷⁶⁾

67)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中國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133.

68) 李時珍. 本草綱目. 中國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885.

69) 張介賓. 景岳全書. 서울. 麗江出版社. 1987. p.380.

70) 吳普. 神農本草經. 서울. 翰林社. 1976. p.20.

71) 陶弘景. 名醫別錄. 中國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222.

72)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中國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137.

73) 王好古. 湯液本草. 서울. 醫聖堂. 1994. p.152.

74)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中國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82.

75) 張介賓. 景岳全書. 서울. 麗江出版社. 1987. p.362.

76) 李東垣. 用藥珍珠囊. 中國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20.

3) 赤芍

『神農本草經』“主邪氣腹痛，除血痺，破堅積，寒熱疝瘕，止痛，利小便，益氣”⁷⁷⁾

『名醫別錄』“通順血脈，緩中，散惡血，逐賊血，去水氣，利膀胱大小腸，消癰腫，時行寒熱，中惡腹痛，腰痛”⁷⁸⁾

『本草求真』“赤則止有散邪行血之意，赤則能于血中活滯”⁷⁹⁾

4) 鱉甲

『神農本草經』“主心腹癥瘕堅積，寒熱，去痞，息肉，陰蝕，痔惡肉”⁸⁰⁾

『名醫別錄』“療溫疾，血瘕，腰痛，小兒脇下堅”⁸¹⁾

『日華子本草』“去血氣，破癥結，惡血，墮胎，消脹腫，并撲損瘀血，瘡疾，腸癰”⁸²⁾

3. 涼藥

1) 黃連

『神農本草經』“主熱氣目痛，眦傷泣出，明目，腸澼腹痛下痢，婦人陰中腫痛”⁸³⁾

『名醫別錄』“主五臟冷熱，久下泄澼膿血，止消渴，大驚，除水利骨，調胃厚腸，益膽，療口瘡”⁸⁴⁾

『日華子本草』“治五勞七傷，益氣，止心腹痛。驚悸，煩燥，潤心肺，長肉，止血，并瘡疥，盜汗，天行熱疾”⁸⁵⁾

『本草備要』“治癰疽瘡疥，酒毒，胎毒。除疔，殺蛔”⁸⁶⁾

77) 吳普. 神農本草經. 서울. 翰林社. 1976. p.9.

78) 陶弘景. 名醫別錄. 中國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117.

79) 黃宮綉. 本草求真. 서울. 醫聖堂. 1997. p.216.

80) 吳普. 神農本草經. 서울. 翰林社. 1976. p.29.

81) 陶弘景. 名醫別錄. 中國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193.

82)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中國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175.

83) 吳普. 神農本草經. 서울. 翰林社. 1976. p.25.

84) 陶弘景. 名醫別錄. 中國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116.

85)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中國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48.

2) 菱藜

『名醫別錄』“主心腹結氣虛熱，濕毒腰痛，莖中寒，及目痛毗爛淚出”⁸⁷⁾

『日華子本草』“除煩悶，止渴，潤心肺，補五勞七傷虛損，腰脚疼痛，天行熱狂”⁸⁸⁾

『本草綱目』“主風溫自汗灼熱，及勞瘵寒熱，脾胃虛乏，男子小便頻數，失精，一切虛損”

4. 溫藥

1) 砂仁

『日華子本草』“治一切氣，霍亂轉筋，心腹痛，能起酒香味”⁸⁹⁾

『本草蒙筌』“止惡心，却腹痛”⁹⁰⁾

『景岳全書』“和脾行氣消食逐寒”⁹¹⁾

2) 生薑

『神農本草經』“去臭氣，通神明”⁹²⁾

『本草從新』“行陽分而祛寒發表，宣肺氣而解鬱調中，暢胃口而開痰下食”⁹³⁾

『用藥珍珠囊』“益脾胃，散風寒”⁹⁴⁾

3) 木香

『神農本草經』“主邪氣，辟疫溫鬼，強志，主淋露”⁹⁵⁾

86) 汪昂. 本草備要. 天津科學技術出版社. 中國天津. 2000. P.88.

87) 陶弘景. 名醫別錄. 中國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22.

88)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中國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32.

89)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中國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84.

90) 黃宮綉. 本草求真. 서울. 醫聖堂. 1997. p.93.

91) 張介賓. 景岳全書. 서울. 麗江出版社. 1987. p.359.

92) 吳普. 神農本草經. 서울. 翰林社. 1976. p.6.

93) 吳儀洛. 本草從新. 서울. 杏林書院. 1972. p.170.

94) 李東垣. 用藥珍珠囊. 中國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8. p.18.

95) 吳普. 神農本草經. 서울. 翰林社. 1976. p.18.

『名醫別錄』“療氣劣，肌中偏寒。主氣不足，消毒，溫瘧，行藥之精”⁹⁶⁾

『日華子本草』“治心腹一切氣，止渴，霍亂，痢疾，安胎，健脾消食。療羸劣，膀胱冷痛，嘔逆反胃”⁹⁷⁾

4) 肉桂

『神農本草經』“主上氣咳逆，結氣喉痺吐吸，利關節，補中益氣”⁹⁸⁾

『名醫別錄』“主心痛，脅風，脇痛，溫筋，通脈，止煩，出汗。主溫中，利肝肺氣，心腹寒熱，冷疾，霍亂轉筋，頭痛，腰痛，止睡，咳嗽，鼻鼈；能墮胎，通血脈，理疏不足；宣導百藥，無所畏”⁹⁹⁾

『日華子本草』“治一切風氣，補五勞七傷，通九竅，利關節，益精，明目，暖腰膝，破核癰癩瘰，消瘀血，治風痺骨節攣縮，續筋骨，生肌肉”¹⁰⁰⁾

『醫學啓源』“補下焦不足，治沈寒痼冷及表虛自汗”¹⁰¹⁾

5) 肉豆蔻

『海藥本草』“主心腹蟲痛，脾胃虛冷氣并，冷熱虛泄，赤白痢等”¹⁰²⁾

『日華子本草』“調中下氣，止瀉利，開胃，消食。皮外絡，下氣，解酒毒，治霍亂”¹⁰³⁾

『本草綱目』“暖脾胃，固大腸”¹⁰⁴⁾

6) 益智仁

『醫學啓源』“治脾胃中寒邪，和中益氣。治人多唾，

當於補中藥內兼用之”¹⁰⁵⁾

『本草綱目』“治冷氣腹痛，及心氣不足，夢泄，赤濁，熱傷心系，吐血，血崩”¹⁰⁶⁾

『本草備要』“能澁精固氣，溫中進食”¹⁰⁷⁾

7) 吳萸

『神農本草經』“主溫中下氣，止痛，咳逆寒熱，除濕血痺，逐風邪，開腠理”¹⁰⁸⁾

『名醫別錄』“主痰冷，腹內絞痛，諸冷實不消，中惡，心腹痛，逆氣，利五臟”¹⁰⁹⁾

『日華子本草』“健脾，通關節。治霍亂瀉痢，消痰，破癥癖，逐風，治腹痛，腎氣，脚氣，水腫，下產後餘血”¹¹⁰⁾

『本草綱目』“開鬱化滯。治吞酸，厥陰痰涎頭痛，陰毒腹痛，疝氣，血痢，喉舌口瘡”¹¹¹⁾

8) 丁香

『海藥本草』“主風疝蠱，骨槽勞臭。治氣，殺蟲，療五痔，關惡去邪。治奶頭花，止五色毒痢，正氣，止心腹痛。”¹¹²⁾

『日華子本草』“治口氣，反胃，療腎氣，奔豚氣，陰痛，壯陽，暖腰膝，治冷氣，殺酒毒，消痰癖，除冷勞”¹¹³⁾

『景岳全書』“溫中快氣。治上焦呃逆。除陰寒瀉痢，七情五鬱”¹¹⁴⁾

96) 陶弘景. 名醫別錄. 中國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32.

97)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中國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42.

98) 吳普. 神農本草經. 서울. 翰林社. 1976. p.37.

99) 陶弘景. 名醫別錄. 中國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36.

100)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中國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115.

101) 張元素. 中華醫書集成(第22冊)醫學啓源. 中國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41.

102) 李珣. 海藥本草. 中國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27.

103)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安徽科學技術出版社. 中國合肥. 2005. p.83.

104) 李時珍. 本草綱目. 中國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380.

105) 張元素. 中華醫書集成(第22冊)醫學啓源. 中國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42.

106) 李時珍. 本草綱目. 中國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中國北京. 1998. p.378.

107) 汪昂. 本草備要. 中國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p.98.

108) 吳普. 神農本草經. 서울. 翰林社. 1976. p.22.

109) 陶弘景. 名醫別錄. 中國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114.

110)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中國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128.

111) 李時珍. 本草綱目. 中國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791.

112) 李珣. 海藥本草. 中國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42.

113)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中國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123.

114) 張介賓. 景岳全書. 서울. 麗江出版社. 1987. p.376.

『本經逢源』“溫胃進食，止嘔定瀉，虛冷下痢白沫之要藥”¹¹⁵⁾

9) 藿香

『湯液本草』“溫中快氣，肺虛有寒，上焦壅熱，飲酒口臭，煎湯漱”¹¹⁶⁾

『用藥珍珠囊』“補胃氣，益胃，進飲食”¹¹⁷⁾

『申氏本草學』“治脾胃，吐逆”¹¹⁸⁾

10) 胡椒

『海藥本草』“去胃口氣虛冷，宿食不消，心腹卒痛，冷氣上冲，和氣”¹¹⁹⁾

『日華子本草』“調五臟，止霍亂，心腹冷痛，壯腎氣，及主冷痢，殺一切魚·肉·蟹·蕈毒”¹²⁰⁾

『本草綱目』“暖腸胃，除寒濕反胃，虛脹冷積，陰毒，牙齒浮熱作痛”¹²¹⁾

11) 附子

『神農本草經』“主風寒咳逆邪氣，溫中，金創，破癥堅積聚，血瘕，寒濕踈蹶，拘攣膝痛，不能行步”¹²²⁾

『名醫別錄』“脚疼冷弱，腰脊風寒，心腹冷痛，霍亂轉筋，下痢赤白，堅肌骨，強陰，又墮胎，為百藥長”¹²³⁾

『本草備要』“補命門火，逐風寒濕”¹²⁴⁾

12) 良薑

115) 張璠. 本經逢源. 中國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82.

116) 王好古. 湯液本草. 서울. 醫聖堂. 1994. p.136.

117) 李東垣. 用藥珍珠囊. 中國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8. p.16.

118) 申佶求. 申氏本草學. 서울. 壽文社. 1973. p.490.

119) 李珣. 海藥本草. 中國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64.

120)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中國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145.

121) 李時珍. 本草綱目. 中國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789.

122) 吳普. 神農本草經. 서울. 翰林社. 1976. p.5.

123) 陶弘景. 名醫別錄. 中國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235.

124) 汪昂. 本草備要. 中國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P.89.

『名醫別錄』“主暴冷，胃中冷逆，霍亂腹痛”¹²⁵⁾

『日華子本草』“治轉筋瀉痢，反胃嘔食，消宿食”¹²⁶⁾

『用藥珍珠囊』“建脾胃”¹²⁷⁾

13) 紅豆蔻

『本草綱目』“治噎膈反胃，虛癯寒脹，燥濕散寒”¹²⁸⁾

『蜀本草』“主心腹冷痛”¹²⁹⁾

3.2 他臟에 주로 작용하는 藥物

1. 補藥

1) 滑石(兼瀉)

『神農本草經』“主身熱洩痢，女子乳難，癰閉，利小便，蕩胃中積聚寒熱，益精氣”¹³⁰⁾

『名醫別錄』“通九竅六腑津液，去留結，止渴，令人利中”¹³¹⁾

『日華子本草』“治乳癰，利津液”¹³²⁾

『本草衍義』“燥濕，分水道，寬大腸，化食毒，行積滯，逐凝血，解燥渴，補脾胃，強心火之要藥。”¹³³⁾

2) 柴胡

『神農本草經』“主心腹去腸胃中結氣，飲食積聚，寒熱邪氣，推陳致新”¹³⁴⁾

125) 陶弘景. 名醫別錄. 中國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153.

126)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中國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76.

127) 李東垣. 用藥珍珠囊. 中國醫藥科技出版社. 中國北京. 1998. p.19.

128) 李時珍. 本草綱目. 中國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376.

129)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中國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397.

130) 吳普. 神農本草經. 서울. 翰林社. 1976. p.6.

131) 陶弘景. 名醫別錄. 中國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9.

132)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中國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9.

133) 寇宗奭. 本草衍義. 서울. 醫聖堂. 1994. p.24.

134) 吳普. 神農本草經. 서울. 翰林社. 1976. p.16.

『名醫別錄』“除傷寒心下煩熱，除痰熱結實，胸中邪逆，五臟間游氣，大腸停積，水脹，及濕痺拘攣”¹³⁵⁾

『日華子本草』“補五勞七傷，除煩，止驚，益氣力，消痰，止嗽，潤心肺，添精，補髓，天行溫疾，熱狂之絕，胸脇氣滿，健忘”¹³⁶⁾

2. 瀉藥

1) 葶藶子

『神農本草經』“主癥瘕積聚結氣，飲食寒熱，破堅逐邪，通利水道”¹³⁷⁾

『名醫別錄』“下膀胱水，伏留熱氣，皮間邪水上出，面目浮腫，身暴中風熱非癢，利小腹”¹³⁸⁾

『日華子本草』“利小腸，通水氣虛腫”¹³⁹⁾

『本草綱目』“通月經”¹⁴⁰⁾

2) 桑白皮

『神農本草經』“主傷中，五勞六極羸瘦，崩中，脈絕，補虛益氣”¹⁴¹⁾

『名醫別錄』“去肺中水氣，唾血，熱渴，水腫，腹滿臃脹，利水道，去寸白，可以縫金瘡”¹⁴²⁾

『日華子本草』“調中，下氣，益五臟，消痰止渴，利大小腸，開胃，下食，殺腹臟蟲，止霍亂吐瀉”¹⁴³⁾

『本草綱目』“瀉肺，降氣，散血”¹⁴⁴⁾

3) 青皮

『醫學啓源』“破堅癥，散滯氣，去下焦諸濕，左脅有積有氣”¹⁴⁵⁾

『本草綱目』“治胸膈氣逆，脇痛，小腹痛，消乳腫，疏肝膽，瀉肺氣”¹⁴⁶⁾

『本草備要』“治肝氣鬱積，脇痛多怒，久瘕結癖，瘕痛乳腫”¹⁴⁷⁾

3. 涼藥

1) 梔子

『神農本草經』“主五內邪氣，胃中熱氣，面赤，酒疸，鼽鼻，白癩，赤癩，創瘍”¹⁴⁸⁾

『名醫別錄』“療目熱赤痛，胸心，大小腸大熱，心中煩悶，胃中熱氣”¹⁴⁹⁾

『醫學啓源』“療心經客熱，除煩燥，去上焦虛熱，治風”¹⁵⁰⁾

『本草綱目』“治吐血，衄血，血痢，下血，血淋，損傷瘀血，及傷寒勞復，熱厥頭痛，疝氣，湯火傷”¹⁵¹⁾

2) 羚羊角

『神農本草經』“主明目，益氣起陰，去惡血注下，辟蠱毒惡鬼不祥，安心氣”¹⁵²⁾

『名醫別錄』“療傷寒時氣寒熱，熱在肌膚，溫風注毒伏在骨間，除邪氣驚夢，狂越僻謬，及食噎不通”¹⁵³⁾

135) 陶弘景. 名醫別錄. 中國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40.

136)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中國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41.

137) 吳普. 神農本草經. 서울. 翰林社. 1976. p.8.

138) 陶弘景. 名醫別錄. 中國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224.

139)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中國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89.

140) 李時珍. 本草綱目. 中國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463.

141) 吳普. 神農本草經. 서울. 翰林社. 1976. p.21.

142) 陶弘景. 名醫別錄. 中國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131.

143)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中國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131.

144) 李時珍. 本草綱目. 中國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879.

145) 張元素. 中華醫書集成(第22冊)醫學啓源. 中國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44

146) 李時珍. 本草綱目. 中國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759.

147) 汪昂. 本草備要. 中國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P.161.

148) 吳普. 神農本草經. 서울. 翰林社. 1976. p.22.

149) 陶弘景. 名醫別錄. 中國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144.

150) 張元素. 中華醫書集成(第22冊)醫學啓源. 中國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48.

151) 李時珍. 本草綱目. 中國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886.

152) 吳普. 神農本草經. 서울. 翰林社. 1976. p.27.

153) 陶弘景. 名醫別錄. 中國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本草備要』“祛風舒筋，治驚癇搐搦，骨痛筋攣”¹⁵⁴⁾

3) 連翹

『神農本草經』“主寒熱，鼠瘻，癰癤，癰腫惡創，癭瘤，結熱”¹⁵⁵⁾

『日華子本草』“通小腸，排膿，治瘡癤，止痛，通月經”¹⁵⁶⁾

『醫學入門』“散心火”¹⁵⁷⁾

4) 澤瀉

『神農本草經』“主風寒濕痺，乳難，消水，養五臟，益氣力，肥健”¹⁵⁸⁾

『日華子本草』“治五勞七傷，主頭旋，耳虛鳴，筋骨攣縮，通小腸，止遺瀝，尿血，催生，難產補女人血海，令人有子”¹⁵⁹⁾

『醫學啓源』“治小便淋瀝，去陰間汗”¹⁶⁰⁾

5) 仙靈脾

『神農本草經』“主陰痿絕傷，莖中痛，利小便，益氣力，強志”¹⁶¹⁾

『名醫別錄』“堅筋骨，消癰癢，赤癰；下部有瘡，洗出蟲”¹⁶²⁾

『日華子本草』“治一切冷風勞氣，補腰膝，強心力，丈夫絕陽不起，女子絕陰無子，筋骨攣急，四肢不任，老人昏眊，中年健忘”¹⁶³⁾

p.172.

154) 汪昂. 本草備要. 中國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P.228.

155) 吳普. 神農本草經. 서울. 翰林社. 1976. p.17.

156)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中國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99.

157) 李梴. 編註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84. 丙集卷二. p.108.

158) 吳普. 神農本草經. 서울. 翰林社. 1976. p.19.

159)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中國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35.

160) 張元素. 中華醫書集成(第22冊)·醫學啓源. 中國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45

161) 吳普. 神農本草經. 서울. 翰林社. 1976. p.12.

162) 陶弘景. 名醫別錄. 人民衛生出版社. 中國北京. 1986. p.143.

3. 溫藥

1) 香附

『名醫別錄』“主除胸中熱，充皮毛，久服利人，益氣，長鬢眉”¹⁶⁴⁾

『湯液本草』“治崩漏”¹⁶⁵⁾

『本草從新』“治多怒多憂，痰飲積聚，痞滿腹脹，霍亂吐瀉，癰疽瘡瘍，吐血便血，崩中帶下，月候不調”¹⁶⁶⁾

2) 川芎

『神農本草經』“主中風入腦頭痛，寒痺，筋攣緩急，金創，婦人血閉無子”¹⁶⁷⁾

『名醫別錄』“除腦中冷疼，面上遊風去來，目淚出，多涕唾，忽忽如醉，除寒冷氣，心腹堅痛，中惡，卒急腫痛，脊風痛，溫中內寒”¹⁶⁸⁾

『日華子本草』“治一切風，一切氣，一切勞損，一切血。補五勞，壯筋骨，調衆脈，破癥結宿血，養新血，長肉，鼻洪，吐血及溺血，痔痿，腦癰，發背，癰癢癩贅，瘡疥，及排膿，消瘀血”¹⁶⁹⁾

『醫學啓源』“補血，治血虛頭痛”¹⁷⁰⁾

163)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中國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70.

164) 陶弘景. 名醫別錄. 中國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154.

165) 王好古. 湯液本草. 서울. 醫聖堂. 1994. p.72.

166) 吳儀洛. 本草從新. 서울. 杏林書院. 1972. p.35.

167) 吳普. 神農本草經. 서울. 翰林社. 1976. p.24.

168) 陶弘景. 名醫別錄. 中國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119.

169)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中國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51.

170) 張元素. 中華醫書集成(第22冊)·醫學啓源. 中國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40.

【표 4】『醫學入門·臟腑條分』中 脾臟編
病理機轉과 藥物

脾虛證	左腹動氣, 按則疼痛 → 肝虛入脾 : 柴胡 臍腹痛, 四肢厥冷 → 腎虛入脾 : 仙靈脾
脾氣證	小便不利, 浮腫 → 肺氣入脾 : 葶藶子, 桑白皮 胃脘脹滿作痛, 嘈雜 或嘔惡 → 肝氣入脾 : 青皮, 香附子, 川芎
脾熱證	心中煩熱, 口渴 → 心熱入脾 : 梔子, 連翹 兩脇疼痛, 口苦, 吞酸 → 肝熱入脾 : 澤瀉 腰痛, 身熱 → 腎熱入脾 : 活石
脾風證	眩暈, 痙厥, 四肢抽搐 → 肝風入脾 : 羚羊 羊角

IV. 考 察

脾는 五行중 土에 배속되며, 土(흙)는 만물을 길러 내는 母體이다. 脾는 이 母體와과 같이 모든 臟腑에 精과 津液 등의 영양물질을 공급하는 근본이 되고, 食物을 소화시켜 全身에 운반함으로써 人體의 생명활동을 유지시킨다. 그래서 『醫宗必讀』에서 “脾는 後天之本이다”¹⁷¹⁾이라 하였고 『素問·玉機眞藏論篇』에 “脾脈은 土에 속하며 孤臟이 되어 四傍을 灌溉하는 것이다.”¹⁷²⁾라고 하였다.

自然界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면서 서로 영향을 미친다. 人體의 臟腑도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균형이 깨어지면 臟腑間에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臟腑중에서 脾臟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다른 臟腑로 영양물질이 공급되지 못하여 다른 臟腑의 異常을 초래하게 되고, 반대로 다른 臟腑의 異常은 점차적으로 脾臟에 影響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本臟과 他臟間에 서로 影響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고서 『醫學入門·臟腑條分』中 脾臟에 작용하는 藥物을 分析하였던 바, 本臟에 주로 작용하는 藥物은 물론 他臟에 주로 작용하여 脾臟에 影響을 미

치는 藥物까지도 『醫學入門·臟腑條分』中 脾臟에 配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本臟에 주로 작용하는 藥物로는 人蔘·黃芪·茯苓·白朮·甘草·蒼朮·陳皮·半夏¹⁷³⁾ 등이 있는데 胃中冷、腹痛、吐逆、霍亂、泄痢、腹痛、血崩帶下 등 脾臟과 관련 있는 病症을 다스리는 效能이 있음을 여러 本草書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이 중에서 補藥은 人蔘·黃芪·茯苓·白朮·甘草·蒼朮·陳皮·半夏·蓮肉·芡實·山楂·扁豆·麥芽·山藥·乾薑·大腹皮·升麻·枳殼 등 18종으로 대부분 補氣健脾止瀉、燥濕化痰利水 등의 效能이 있는 藥物들이며, 瀉藥은 巴豆 1종으로 瀉下冷積, 逐水退腫 등의 效能이 있으며, 涼藥은 黃連·萎蕤 등 2종으로 清熱燥濕、生津養胃하는 效能이 있으며, 溫藥은 砂仁·生薑·木香·肉豆蔻·益智仁·吳萸·丁香·藿香·胡椒·良薑·紅豆蔻 등 11종으로 溫中化濕、止嘔、補火的 效能이 있는 藥物들로 이루어져 있으니, 各기 補脾、瀉脾、涼脾、溫脾에 配屬시켰음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특기할 만 한 점은 현대의 本草書에서 理氣藥과 消食藥에 속하는 藥物中 일부를 『醫學入門·臟腑條分』중 補脾하는 藥物에 배속시켰다는 점이다. 理氣藥중에서 氣를 비교적 強하게 돌리지 않는 陳皮、大腹皮、枳殼을 補脾하는 藥物로 포함을 시킨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消食藥중에서도 藥性이 그다지 強하지 않는 山楂、麥芽를 補脾하는 藥物에 포함시킨 것을 알 수 있다.

本臟에 주로 작용하는 藥物 중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藥物은 萎蕤이다. 萎蕤와 관련된 본론의 내용 중 ‘主心腹結氣虛熱, 止渴, 脾胃虛乏, 補五勞七傷虛損’ 등이 脾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며, 『本草三家合註』에 “太陰濕土의 精을 받아서 中焦의 汁을 돕는다”¹⁷⁴⁾라 하였고, 『本草備要』에 “補中益氣”¹⁷⁵⁾라 하여 脾臟에 歸經하는 藥物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補

173) 人蔘·黃芪·茯苓·白朮·甘草·蒼朮·陳皮·半夏·蓮肉·芡實·山楂·扁豆·麥芽·山藥·乾薑·大腹皮·升麻·枳殼·巴豆·黃連·萎蕤·砂仁·生薑·木香·肉豆蔻·益智仁·吳萸·丁香·藿香·胡椒·良薑·紅豆蔻

174) 張隱庵·葉天士·陳修園 共著. 本草三家合註. 서울. 醫道韓國社. 1976. p.10. “張隱庵曰, 萎蕤氣味甘平, 質多津液, 稟太陰濕土之精, 以資中焦之汁”

175) 汪昂. 本草備要. 中國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p.15.

171) 李仲梓. 醫宗必讀. 中國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9. “後天之本在脾”

172)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素問研究集成.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253. “脾脈者는 土也며 孤藏以灌四傍者也라”

陰劑 대부분이 寒性이며 그 중 일부가 平性인 경우도 있다. 萎蕤는 平性이지만 補陰劑여서 편의상 涼性으로 配屬시켜도 별 무리는 없다고 본다. 그래서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萎蕤를 涼脾하는 藥物로 配屬시켰음을 알 수 있다. 현대의 本草書에서 萎蕤는 補陰劑로서 滋陰潤肺, 生津養胃하는 效能¹⁷⁶⁾이 이 있다.

本臟에 주로 作用하는 藥物중에 補瀉溫涼이 중복되는 藥物로는 甘草(補兼涼), 乾薑(補兼溫), 升麻(補兼涼), 枳殼(補兼瀉)이 있다.

甘草와 관련한 본론의 내용 중 ‘堅筋骨, 長肌肉, 溫中下氣, 煩滿短氣’ 등의 效能과 主治는 脾臟과 관련이 있으며, 現代의 本草書에서는 補藥으로 분류하는데 補裨益氣 등의 補하는 效能¹⁷⁷⁾이 있어서 甘草를 補藥에 配屬시킴을 알 수 있다. 또한 甘草는 生것을 쓰면 清火解毒의 作用이 있기에 甘草를 涼脾하는 약에도 배속시킴을 알 수 있다. 그래서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甘草를 補脾하는 동시에 涼脾하는 약물에 配屬시킴을 알 수 있다.

乾薑과 관련한 본론의 내용 중 ‘溫中, 治寒冷腹痛, 中惡霍亂脹滿, 解冷熱毒, 開胃, 炮薑溫脾胃, 治裏寒水泄, 下痢腸澀, 久瘧, 霍亂, 心腹冷痛脹滿’ 등 脾와 관련하여 溫補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며, 現代의 本草書에서는 溫裏藥으로 分類시키고 溫中の 效能¹⁷⁸⁾을 지닌다. 그리고 脾臟은 虛하면 차가워지기 쉬우니 冷해진 脾臟을 따뜻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脾臟을 補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乾薑을 補脾하는 동시에 溫脾하는 藥物로 配屬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升麻와 관련한 본론의 내용 중 ‘主中惡腹痛, 口氣, 疝蠶’ 등이 脾와 관련이 있으며 現代의 本草書에서는 解表藥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升陽學陷의 效能¹⁷⁹⁾이 있는데, 이 升陽學陷의 作用은 中氣가 虛할 때 中氣를 補하는 것이기 때문에 補脾하는 藥物에 포함된 것임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본론의 내용 중 ‘主解百毒, 辟溫疾, 時氣毒癘, 喉痛, 口瘡, 游風腫毒’ 등은 熱毒을 푸는 내용들이고, 現代의 本草書에서는 清熱解毒의 效能¹⁸⁰⁾을 지니며 性味는 微寒한 것으로 보아 升麻를 涼脾하는 藥物로 배속시킨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升麻를 補脾하는 동시에 涼脾하는 약물로 配屬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枳殼과 관련한 본론의 내용들이 대부분 脾와 관련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現代의 本草書에서는 枳殼이 理氣藥으로 분류되고 行氣寬中除脹하는 效能¹⁸¹⁾이 있다. 일반적으로 理氣藥들은 補瀉溫涼중 瀉하는 약물에 배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枳殼이 理氣藥중에서도 강한 약이 아니기 때문에 補하는 藥物에 배속시키는 것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補’와 ‘瀉’가 완전히 反對의 개념이라는 것이다. 枳殼이 補脾하는 약물이 되고 瀉脾하는 약물이 된다는 것은 모순이다. 陳皮와 大腹皮의 경우와 같이 여기서는 瀉脾하는 약물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補脾하는 약물에만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고 思料된다.

다음으로 他臟에 주로 作用하는 藥物이 脾臟에 영향을 미치는 藥物에 대하여 고찰해본다.

滑石은 現代의 本草書에서 利水滲濕藥으로 分類를 시켰고 利水通淋, 清解暑熱의 效能¹⁸²⁾이 있는 것으로 보아 腎臟과 관련성이 크다. 腎과 脾는 水液대사 方面에서 서로 相關성을 지니는데, 脾氣가 虛하면 腎이 開闢작용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해서 水分의 吸收와 排泄의 장애를 초래한다. 이때 ‘浮腫, 尿少, 尿多’ 등의 증상이 나타나니 ‘補火生土’의 方法을 써서 脾腎을 同治하게 된다. 滑石의 藥性이 서늘하여 ‘腎熱入脾’하는 증상을 다스리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李梴이 柴胡를 補藥에 배속시킨 것은 柴胡의 升發

176)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中國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239.

177)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中國上海, 上海科學出版社, 1994. p.215.

178) 鄒長青, 中藥袖珍辭典, 中國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6. p.651.

179)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中國上海, 上海科學出版社, 1994. p.31.

180)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中國上海, 上海科學出版社, 1994. p.31.

181)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中國上海, 上海科學出版社, 1994. p.118.

182)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中國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159.

의 특성 때문으로 본다. 『本草三家合註』에 “飲食積聚를 다스리는 것은 대개 음식이 위에 들어가서 肝에 散精하며 肝의 疏散작용은 少陽膽에 의지해서 生發을 주관한다. 柴胡는 膽氣를 승달하니 肝이 능히 散精하게 되고 飲食積聚가 스스로 下하게 된다”¹⁸³⁾고 하였다. 이때 脾氣는 上升한다. 그래서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柴胡를 補脾하는 藥物로 配屬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肝虛入脾한 증상을 다스리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葶藶子和 桑白皮는 肺를 瀉하는 데에 자주 사용하는 약물로서 肺를 瀉하면 實한 脾氣까지도 瀉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韓醫學에서는 直接적인 방법보다는 間接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다. 本臟이 實할 때에 本臟을 직접 瀉하기보다는 本臟이 生하는 臟腑를 瀉하기도 한다. 針灸學에서 五俞穴의 補瀉法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葶藶子和 桑白皮를 瀉脾하는 藥物로 配屬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肺氣入脾한 증상을 다스리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靑皮는 주로 肝氣와 관련이 있는데, 肝氣가 亢盛하면 橫逆하여 脾臟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 이를 肝氣犯脾다 한다. 肝氣가 鬱結되면 脾胃의 정상적인 運化에 영향을 주게 되니 이때 肝을 瀉하면 脾까지 다스려지게 된다. 그래서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靑皮를 瀉脾하는 藥物로 配屬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肝氣入脾한 증상을 다스리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梔子、連翹와 관련한 본론의 내용들이 心과 관련이 많음을 알 수 있다. 心虛해서 血을 推動하는 기능이 무력하거나 혹은 心血이 부족하여 脾의 營血의 濡養기능이 失調하면 脾氣虛弱하게 되고 運化가 失調되서 納呆, 腹脹 등의 증후가 나타나게 된다. 현대의 本草書에서는 梔子を 清熱瀉火藥으로 分類시키고 瀉火除煩, 清熱利濕, 涼血解毒하는 效能¹⁸⁴⁾을 지니며,

連翹를 清熱解毒藥으로 分類시키고 清熱解毒, 消癰散結하는 效能¹⁸⁵⁾을 지닌다. 그래서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梔子を 涼脾하는 藥物로 配屬시킴을 알 수 있다. 그래서 梔子を 心熱入脾한 증상을 다스리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羚羊角과 관련한 본론의 내용으로 보아 羚羊角은 肝의 기운이 亢盛해서 나타나는 症을 다스리는데, 肝이 亢盛하면 木克土의 원리에 따라 脾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대로 脾가 虛하면 肝이 實한 상태가 되어 肝이 脾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現代의 本草書에서 羚羊角을 平肝息風藥으로 分類시키고 平肝息風, 清肝明目하는 效能¹⁸⁶⁾이 있어서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羚羊角을 涼脾하는 藥物로 配屬시켰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羚羊角을 肝風入脾한 증상을 다스리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澤瀉와 관련한 본론의 내용은 주로 腎과 관련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腎의 기능 중 腎主水の 기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腎은 水를 주관하고 水의 開闢作用을 주관함에 있어 脾氣가 관여를 하게 된다. 만일 脾氣가 虛하여 腎을 제약하지 못하면 腎의 開闢作用이 失常되어 水分의 吸收와 排泄에 障礙를 가져오게 된다. 現代의 本草書에서는 利水滲濕藥으로 分類시키고 利水滲濕, 泄熱하는 效能¹⁸⁷⁾이 있어서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澤瀉를 涼脾하는 藥物로 配屬시켰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澤瀉를 肝熱入脾한 증상을 다스리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仙靈脾와 관련한 본론의 내용이 腎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脾의 運化기능은 반드시 陽의 근원인 腎陽의 溫煦蒸騰작용에 의지해야 만이 그 기능을 완성할 수 있다. 따라서 腎陽이 부족하게 되면 脾의 運化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食少, 腹脹, 久瀉不止 등의 증후가 나타난다. 現代의 本草書에서는 仙靈脾를 補藥으로 分類시키고 補腎壯陽, 祛風除濕하

183) 張隱庵·葉天士·陳修園 共著. 本草三家合註. 서울. 醫道韓國社. 1976. p.6. “葉天士曰…主飲食積聚者, 蓋飲食入胃, 散精於肝, 肝之疏散, 又藉少陽膽爲生發之主也, 柴胡升達膽氣, 則肝能散精, 而飲食積聚自下矣”

184)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中國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122.

185)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中國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49.

186)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中國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109.

187)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中國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96.

는 效能이 있다. 그래서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仙靈脾를 涼脾하는 藥物로 配屬시키지 말고 溫脾하는 藥物로 배속시키는 게 옳다고 思料된다. 따라서 仙靈脾를 腎虛入脾한 증상을 다스리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香附子, 川芎과 관련한 본론의 내용이 肝과 관련이 있음에도 脾에 배속을 시켰다. 肝은 疏泄기능과 條達작용이 있어서 脾가 健運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만일 肝氣가 鬱結되어 疏泄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脾胃의 健運기능은 정상적인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이때 肝의 鬱結을 풀면 비위의 健運기능은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香附를 溫脾하는 藥物에 配屬시켰음을 알 수 있다. 現代本草書에서는 香附를 理氣藥으로 분류시키고 疏肝理氣, 調經止痛하는 效能¹⁸⁸⁾을 지니며, 川芎을 活血祛瘀藥으로 분류시켰으며 活血行氣하는 效能¹⁸⁹⁾을 지닌다. 그러므로 香附자와 川芎을 肝氣入脾한 증상을 다스리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이와 같이 滑石·柴胡·葶藶子·桑白皮·靑皮·梔子·連翹·羚羊角·澤瀉·仙靈脾·香附子·川芎은 他臟에 주로 作用하는 藥物로서 脾臟인 本臟에도 作用을 하게 되니 『醫學入門·臟腑條分』중 脾臟의 藥物로 配屬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V. 結 論

『醫學入門·臟腑條分』中 脾臟에 作用하는 藥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本臟에 주로 作用하는 藥物은 人蔘·黃芪·茯苓·白朮·甘草·蒼朮·陳皮·半夏·蓮肉·芡實·山楂·扁豆·麥芽·山藥·白芍藥·乾薑·大腹皮·升麻·枳殼·巴豆·三稜·赤芍·鱉甲·黃連·萎蕤·砂仁·生薑·木香·肉桂·肉豆蔻·益智仁·吳萸·丁香·藿香·胡椒·附子·

良薑·紅豆蔻 등 38종이다.

2. 他臟에 주로 作用하는 藥物은 滑石·柴胡·葶藶子·桑白皮·靑皮·梔子·連翹·羚羊角·澤瀉·仙靈脾·香附子·川芎 등 12종이다.

3. 他臟에 주로 作用하는 藥物의 分析은 다음과 같다.

滑石은 腎熱入脾한 증상을 다스린다.

柴胡는 肝虛入脾한 증상을 다스린다.

葶藶子和 桑白皮는 肺氣入脾한 증상을 다스린다.

靑皮는 肝氣入脾한 증상을 다스린다.

梔子和 連翹는 心熱入脾한 증상을 다스린다.

羚羊角은 肝風入脾한 증상을 다스린다.

澤瀉는 肝熱入脾한 증상을 다스린다.

仙靈脾는 腎虛入脾한 증상을 다스린다.

香附子和 川芎은 肝氣入脾한 증상을 다스린다.

參考文獻

<단행본>

1. 靈樞研究集成刊行委員會. 靈樞研究集成(上卷). 대구. 청운인쇄. 2006.
2. 日華子本草·蜀本草(合刊本). 中國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3. 秦伯末. 秦伯末醫學名著全書. 中國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3.
4. 申榮日·金善鎬譯. 傷寒明理論. 서울. 周珉出版社. 2003.
5. 最新中韓詞典. 康寔鎭·南德鉉·李相度·張皓得編. 中國黑龍江.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2001.
6.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素問研究集成. 大邱. 金星印刷社. 2001.
7. 李時珍. 本草綱目. 中國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8. 傳統醫學研究所.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成輔社. 1999.
9. 張元素. 中華醫書集成(第22冊)醫學啓源. 中國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188)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中國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121.

189)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中國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149.

10. 黃宮綉. 本草求真. 서울. 醫聖堂. 1999.
11. 許浚. 東醫寶鑑. 中國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12. 李仲梓. 醫宗必讀. 中國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13. 李東垣. 用藥珍珠囊.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8.
14. 李珣. 海藥本草. 人民衛生出版社. 中國北京. 1997.
15. 汪昂. 本草備要. 中國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16. 鄒長青. 中藥袖珍辭典. 中國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6.
17. 張璠. 本經逢源. 中國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18. 鄒長青. 中藥袖珍辭典. 中國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6.
19. 中國中醫研究院、廣州中醫學院 主編. 中醫大辭典. 中國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20. 金完熙·崔達永.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1995.
21. 李梴. 醫學入門. 中國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22. 凌一揆 主編. 中藥學. 中國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23. 寇宗奭. 本草衍義. 서울. 醫聖堂. 1994.
24. 王好古. 湯液本草. 서울. 醫聖堂. 1994.
25. 李梴. 編註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94.
26. 江蘇新醫學院編. 中藥大辭典. 中國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27. 李東垣. 用藥珍珠囊. 中國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8.
28. 陳嘉謨. 本草蒙筌. 中國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29. 張介賓. 景岳全書(二). 서울. 驪江出版社. 1987.
30. 陶弘景. 名醫別錄. 中國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31.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32. 李梴. 編註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84.
33. 裴秉哲譯. 今釋 黃帝內經 靈樞. 서울. 成輔社. 1978.
34. 張隱庵·葉天士·陳修園 共著. 本草三家合註. 서울. 醫道韓國社. 卷二. 1976.
35. 張隱庵·葉天士·陳修園 共著. 서울. 本草三家合註. 醫道韓國社. 1976.
36. 吳普. 神農本草經. 서울. 翰林社. 1976.
37. 申佶求. 申氏本草學. 서울. 壽文社. 1973.
38. 吳儀洛. 本草從新. 서울. 杏林書院. 1972.

